

화장실 관리자의 의식이 변할 때

화장실 문화는 바뀐다.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굳어져있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대대손손 이어온 습관은 아마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바로 우리의 화장실 문화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된다. 우선 우리의 화장실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인식되어오고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음을 새삼 느낀다. 바로 몇 년 전의 우리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수원시의 종합운동장에서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는 말단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보아온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하고픈 마음에서 이 글을 적어본다.

먼저 현장에서 묵묵히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는 아마도 반감을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화장실 관리자들이 자신이 좀더 편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의 많은 부분에 대해 화장실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떠넘긴다면 웬지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화장실의 변화는 관리자부터

아름다운 화장실, 아니 적어도 화장실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을 논하며 대화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2년 전쯤에 나 스스로가 화장실 업무를 자원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화장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처음에 담당하게 된 공중화장실에선 인생을 논하고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글. 김동현
수원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불가능 할 것 같았다. 우선 대변기 안을 들여다보니 불일을 보면서 생긴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있고 휴지통 안에서는 가능하면 맡고싶지 않은 역겨운 냄새가 나며, 벽에는 낙서 투성이에다 휴지걸이에 휴지도 없고 홍보용 문구는 변색되고 천장은 거미줄이 접거하고 잠금 장치는 떨어져 나가고 소변기에서는 지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아무튼 관리자도 있고 청소아주머니도 있고 화장실에 필요한 각종 편의용품이나 소모품의 예산도 있지만 관리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의 화장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사용자의 의식수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나는 화장실은 나의 생계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나는 첫째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화장실을 만들기로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였으며 두 번째로 사용자에게 칭찬하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깨끗이 사용하여주시는 선생님께는 참으로 멋진 시민입니다.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책임공무원 김동현 ☎ 240-2783※ 이렇게 써놓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가히 화장실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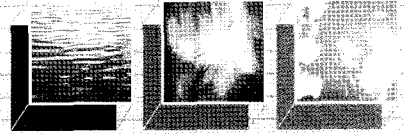


화장실에 파손품 및 소모품을 손수 교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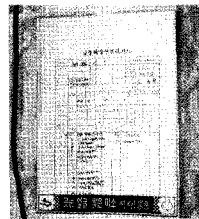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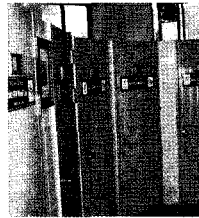
첫 번째,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 시민 스스로가 깨끗하게 사용해주었다. 두 번째, 나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달픔이 있었지만 각종

지금의 나는 화장실에 가보지 않고도

어느 화장실의 어디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한발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마도 사람들은 나를 화장실 전문가라고 불러주는 지도 모른다...



소모품, 설치품 등의 도난 및 파손율이 과거보다 약 75%정도 줄었다는 사실이다. 나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따라서 나 자신이 화장실을 관리하는데는 수월했다. 더더욱 놀란 것은 각종 편의용품 및 소모품, 설치품이 문제가 되었을 때 불특정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바로바로 연락을 해준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시민들을 다 알수는 없지만 나에게서는 엄청난 감시망과 연락망을 둔 것이다. 적어도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면 5-10분 안에 나에게 연락이 되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내가 미처 살펴볼 수 못한 곳도 시민의 감시망과 연락망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나는 화장실에 가보지 않고도 어느 화장실의 어디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한발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마도 사람들은 나를 화장실 전문가라고 불러주는 지도 모른다.



때 좋지도 않은 화장실에 왜 우리 공무원들의 이름이 화장실에 있어야 하느냐고 핀잔도 들었다. 화장실은 그저 불일만 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도 했다. 나는 그때 솔직히 화장실 관련업무를 괜히 자청했구나 라고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들었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단지 우리가 그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나는 작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화장실에 나의 연락처를 악용하여 일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장난전화였다. 예를 든다면 밤늦게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달려가면 이제 고교 1-2학년쯤 된 청소년들이 술을 사달라, 담배 좀 달라, 나하고 원조교제하자, 나를 어디에 데려가 달라는 등의 장난 전화에 어떤 때는 아내에게 오해를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노숙자는 화장실을 내가 봐줄 테니 나에게 매일 밥을 사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슬픔을 느꼈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굳게 결심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전문가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화장실에 관한 것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화장실문제는 사용자(나는 여기서 소비자라고 부른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화장실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문제가 더 많다고 확신한다.

- ① 수원공설운동장내부 시설은 화려하지 않지만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 ② 수원공설운동장내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문구
- ③ 매일 매일 꼼꼼하게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화장실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공간이다.

나는 지금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 처음에 화장실에 사무실 전체 공무원의 이름을 책임공무원으로 넣자고 했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의 공무원 및 관리자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